

서구인이 파헤친 한국경제의 성장 動因

스티어즈 외 지음 「한국의 재벌」

가령, 전형적인 한 미국인 경영자가 하루종일 자기 사무실에서 대우상품인 '리딩 엣지' 마이크로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현대자동차의 '엑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가 일단 집에 도착하면 한국제 양복과 구두를 벗고 옷을 갈아 입은 뒤 삼성제품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 그의 아내는 지금 '출장중'이다 - 식사 후 보르네오가구 제품의 소파에 앉아 전날 녹화해 둔 '코스비 가족'을 금성컬러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아내의 안부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무선 전화기 역시 한국제이다, 라고 가정해 보자.

초근목피의 '보리고개'를 겨우 벗어난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비록 '가령'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만 앞의 가정을 입박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에 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이제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배후' 파헤쳐

리처드 스티어즈교수(오리건대 경영대학원)와 제라르도 영슨교수(오리건대 경영학과), 그리고 신유근교수(서울대 경영학과)가 '85년에서 '88년에 걸쳐 공동으로 연구, 영문으로 발표한 (THE CHAEBOL-KOREA'S NEW INDUSTRIAL MIGHT)의 한국어판인 「한국의 재벌」(한영탁 옮김, 시사영어사, 1990)은 바로 그러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경제성장의 '배후'를 파헤치고 있는 연구서로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계의 괄목할 상대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저작이다.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격과 그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중점육성 산업과 그 대상회사들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과 회사들의 성장 및 번영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오늘과 같은 수준의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격과

그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저자들은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이같은 성공을 이룬

가장 중요한 견인차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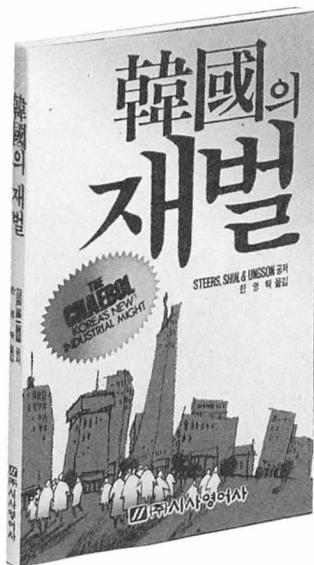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전략·인력자원 및 성공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재벌의 영어식 표기를 'CHAEBOL'이라 함으로써, 번역이 불가능한 고유명사적 성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의 '전위'로서 그 내적 메카니즘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재벌은 일본의 자이바츠(財閥)나 미국의 혼합기업(conglomerate) 과도 다른 기업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각경영을 추구하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일종의 재정적 파벌로서 한개 혹은 두개의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집단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전형적인 재벌의 특징으로 ▲가족에 의한 지배와 경영 ▲가부장적인 지휘체계 ▲중앙집권식 기획·조정 ▲진취적인 기업정신 ▲긴밀한 기업-정부간의 관계 ▲직원채용시 학연중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발전과정에서의 대기업들의 '善戰'을 재조명하기 위해 두명의 미국인 공저자들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장기간 체재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중역, 관리직 및 정부관리 100여명과 인터뷰를 가짐으로써 실증적인 연구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유교적 문화유산에 초점 맞춰

이와 함께 이 책이 갖는 독특함은 이러한 '국가권력과 대기업의 유착관계'의 산물로서의 재벌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기업들이 활동하는 기업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수준과 요구사항이 적은 근로자들, 중앙집권화된 경영과 의사결정, 비교적 적은 정부규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단지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재벌기업의 경영인들이 전통 문화와 현실적응 능력을 남달리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높이 평가된 현실과 조화된 전통문화란, 악히 예상할 수 있듯 유교문화 유산을 가리킨다. 이 책의 저자들은 특히 동아시아역 특유의 유교적 문화유산이 한국인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근로윤리'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생산성과 충성심을 바쳐왔으며,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세대가 희생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는 것.

그리고 기업운용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질서와 유사점이 많아 종업원들의 복종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돌보아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고, 인화유지에 대한 경영자의 강조가 남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축으로 지적되는 산업정책에 대해 이 책은, 정부가 산업정책과 조정 그리고 중점육성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정부는 기업체들에 대해 설비확장을 위한 기본자본 공급, 특혜과세정책, 노동활동의 규제, 선진과학기술 및 생산기술의 획득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결과적으로 재벌과 국가권력의 철저한 유착, 그리고 낮은 임금에서 찾아질 수 있는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최근 여러 면에서 도전받고 있음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서방경제체계에 대한 '수입'에서 성실한 모범학생이었던 한국이 이제 서방세계의 훌륭한 교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저자들은, 다각적인 면에서의 도전을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가능한 현실로 파악하면서 한국경제의 난관타파능력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도전' 가운데 노사관계가 가장 첨예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

이 책의 저자들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기업과 나라 전체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단결된 요구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간 한국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GNP보다 현저히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도 역시 뒤떨어지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누적된 불만이 이 책의 저자들이 직접 인터뷰한 박진우씨(대우자동차 조립공정)를 통해 적절히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장의 果實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27세인 박씨는 임금인상을 내걸고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40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 그는 봉급이 30%인상되어 현재 350달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봉급의 5분의 1은 6명의 가족과 함께 사는 방 한칸짜리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고 있으며 저축의 여유가 없는 박씨는 자녀들에게 병이 생길 경우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래서 박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권우 기자